



대학 통합, 성과와 과제

(부산대 - 밀양대)

● ● ● 김 유 근 | 부산대학교 기획협력처장

부산대학교의 통합은 대학구조개혁과 캠퍼스별 특성화를 동시에 이룩한 국립대 구조개혁의 표본적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통합으로 인해 입학정원 감축, 단과대학 및 산업대학원 통폐합,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행정조직 감축, 신입생 충원을 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캠퍼스 특화 전략에 따라 부산캠퍼스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양산캠퍼스는 세계적 의료 허브로, 밀양캠퍼스는 나노·바이오 분야로 특화하였다.

향후 부산대학교는 지속적 개혁을 통하여 혁신을 도모함으로써 단발성, 일회성이 아닌 일상적, 상시적 혁신을 추진하여 혁신의 시스템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진정한 혁신을 위해 교육 분야 혁신, 산학연구 혁신, 행정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I. 성공적인 대학 통합 모델

부산대학교는 급변하는 대학 정책의 와중에서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구조개혁을 선도하고 주체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특히 부산대학교와 밀양대학교의 통합은 언론과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에서 대학 통합의 성공적 사례로 소개될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부산대학교의 통합 사례는 대학본부의 강한 리더십, 구성원의 대학 발전 의지, 구조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치밀한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대학구조개혁과 캠퍼스별 특성화를 동시에 이룩한 국립대 구조개혁의 표본적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부산대학교는 지난해 3월 바이오 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던 밀양대학교와의 통합을 통해 그동안 취약했던 분야를 보완하여 밀양캠퍼스는 나노와 바이오 특성화 캠퍼스로, 양산캠퍼스는 의생명과학 특화 캠퍼스로, 부산캠퍼스는 종합연구중심대학으로 특성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통합과 캠퍼스별 특화가 가능했던 것은 치밀하고 과감한 구조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대학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대학 운영 방식을 혁신하는 한편, 교육·연구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발전 계획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특히 캠퍼스별로 특성화된 프레임과 과감한 구조개혁은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대학 발전을 위한 재정 확충, 성과 중심의

대학 운영 시스템 구축, 고객 중심의 서비스 체제 확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결실을 거두고 있다.

또한 캠퍼스별 특화 외에 대학 통합을 통한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부산대학교와 밀양대학교의 유사학과 통폐합, 단과대학과 대학원 간 통폐합, 행정 조직의 통합, 양 대학 간 교수·직원의 재배치와 공간의 재배치 등을 과감하게 실행했다.

II. 통합의 구체적 성과

부산대학교 - 밀양대학교 통합의 구체적인 성과로는 첫째, 학부 입학정원 935명을 줄임으로써 2004년 대비 16.9%를 감축했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 '대학·산업대학' 간 통합 시 산업대학의 입학정원 25% 이상을 감축하는 정원 감축 조건과 2009년까지의 정원 감축 목표인 15% 이상의 감축 조건을 모두 상회하는 충족 수준이다.

둘째, 통합과 동시에 밀양대학교의 이공대학과 사회문화대학을 폐지하여 부산대학교와 유사·중복 학과 12개를 통폐합하고, 생명자원과학대학 관련학과를 미래형 학과(부)로 재배치했다. 부산대학교의 나노과학기술학부를 밀양캠퍼스로 이전하여 나노과학기술대학으로 확대 개편했다. 의·치과대학이 각각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 간호학과가 간호대학으로 승격되면서 2개의 단과대학이 감축됐다.

셋째, 밀양대학교의 산업대학원은 부산대학교의 산업대학원과 통폐합하면서 밀양 지역의 인력 수요가 많은 조경학, 산업건축학, 산업토목학, 원예생명과학 4개 전공만 밀양캠퍼스에 남겨두고, 부산대학교의 산업대학원과 중복되는 10개 전공을 폐지했다. 아울러 자율전공학과와 야간학부 7개 학과를 폐지하여 총 18개 학과를 폐지했다.

넷째, 통합 전 밀양대학교의 총장 및 대학본부 3처, 1국, 5과를 모두 폐지하고, 부산대학교와 중복되는 지원·부속 시설 16개 중 13개, 연구 시설 10개 중 3개, 법인·기타 시설 3개는 폐지 또는 부산대학교 지원·부속 시설의 분원·분관으로 흡수하여 조직을 슬림화시켰다.

다섯째, 통합 전인 2005학년도에 밀양대학교 신입생 충원율은 81.1%였으나 2006학년도와 2007학년도에는 98%대로 높아졌으며, 신입생의 입학 수준도 부산캠퍼스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이처럼 입학정원 감축, 단과대학 및 산업대학원 통폐합, 유사·중복 학과 통폐합, 행정조직 감축은 당초 계획대로 100% 달성했고, 신입생 충원율도 크게 개선되어 통합을 통한 구조조정이 확실하게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학 운영 체제 및 학사 구조도 과감히 개선하여 부산대학교 본부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되 밀양대학교 본부 조직은 모두 폐지하고 통합 행정실로 개편했다. 양 캠퍼스에 중복되는 부속·지원 시설은 모두 통폐합하여 13개 지원·부속 시설과 3개 연구 시설, 3개 법인·기타 시설을 감축했고 꼭 필요한 부속 시설은 분원 또는 분소로 조정했다. 이같은 조직의 슬림화를 실현하여 보직 수를 무려 102개나 감축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또한 교수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교수 업적평가 및 교원 성과급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BBC를 도입하여 행정 직원 평가제도를 성과 중심의 평가시스템으로 전환했고 교양교육원 신설, 전공 트랙제 도입, 전공 학점 상향 조정을 통하여 전공 교육 내실화를 도모했다.

Ⅲ. 캠퍼스별 특화 발전

부산대학교는 새로운 각오로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며 ‘글로벌 명문’으로 도약하고 있다. 부산—양산—밀양으로 이어지는 특화된 캠퍼스벨트를 구축하여 복수 캠퍼스 시대를 열고 동북아 핵심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다지며 동남권의 싱크탱크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부산대학교는 캠퍼스 특화 전략에 따라 부산캠퍼스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양산캠퍼스는 세계적인 의료 허브로, 밀양캠퍼스는 나노·바이오 분야로 특화하고 있다.

1. 부산캠퍼스 – 연구중심대학

부산캠퍼스는 전통과 역사를 간직한 메인 캠퍼스로서 다양한 학문 분야를 선도하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한다. 현대화 전략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과 복지를 위한 ‘강의실 혁신’ 계획을 추진하여 전 강의실을 e-러닝이 가능한 첨단강의실로 바꾸고 있다.

현재 81%(195개)를 마무리했고, 이번 여름방학 중으로 나머지 강의실을 첨단화함으로써, 국내 대학 최초로 전체 강의실에서 첨단 e-러닝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그린캠퍼스 전략에 따라 미리내골 생태계 복원, 조각공원 조성 등을 완료했으며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성학관, 제2법학관, 제1교수연구동, 과학기술연구동 등을 완공했다.

부산캠퍼스는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교육과정과 시스템 혁신을 통하여 인재 양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교육과 학습 역량을 증대시키고, 종합인력개발원의 역할을 확장하여 체계적인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나아가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우수 학생들을 삼성, LG 등 유망 기업체에 곧바로 취업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제교류교육원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다양화함으로써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2. 양산캠퍼스 – 세계적인 의료 허브

양산캠퍼스는 첨단 의생명과학의 메카로 조성되고 있다. 양산캠퍼스에는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2008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고, 따라서 2009년에는 의생명 분야의 양산캠퍼스 시대가 개막된다. 2005년 6월부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공사를 시작했으며 치과병원, 간호센터, 한방병원, 어린이병원 등이 연차적으로 완공될 계획이다.

부산대학교는 양산캠퍼스를 기존 아미동 병원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생명과학의 메카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를 계기로 양산캠퍼스를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허브로 조성하는 계획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양·한방 협진센터와 대규모 의학R&D센터를 건립하는 등 의학 분야 R&D 기반을 강화하고,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과학화하여 한국의 의료 수준 향상을 리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산캠퍼스의 의료 허브는 부산대학교는 물론 의생명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유치를 계기로 지난 4월말 산청군과 관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산청군 전통한방휴양관광지에 '부산대학교 부설 산청한의학박물관' 이 문을 여는 등 명실상부한 동남권 중심대학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3. 밀양캠퍼스-나노·바이오 특화

밀양캠퍼스는 나노·바이오 분야 특화 캠퍼스로 육성한다. 나노과학기술 분야의 핵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단과대학 규모로는 국내 대학 중 최초로 나노과학기술대학을 신설하였다. 학제 간 상호 연계를 통해 나노 전문 교육, 나노 인프라 구축을 통한 나노 특성화 교육, 나노과학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맞춤형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21세기 성장산업인 생명자원과학 분야를 선도할 생명자원과학대학을 육성하고 있다. 밀양캠퍼스는 생명공학(BT), 정보화기술(IT), 초미세과학기술(NT)을 융합한 교육과 연구의 메카가 될 것이다.

밀양캠퍼스에는 2006년 5월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 프라운호퍼 IGB(계면 및 생물공학연구원)와 공동으로 PNU-IGB 국제공동연구소를 개소하여 국제적인 공동 연구와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국비, 지자체 지원금, 민간자금, 대학 재원 등 5년간 300억 원이 투입될 것이며, 첨단 생물 소재 및 BNT 분야의 동북아 R&D 허브이자 과학영재 교육의 메카로 거듭날 것이다. 첨단 의생명과학캠퍼스로 조성 중인 양산캠퍼스와의 연계를 통하여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V. 성공적 통합의 배경과 추진 과정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추진하고 개방과 교류를 통해 교육·연구 역량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대학의 구조개혁은 국립, 사립 그리고 대학의 규모와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대학교는 밀양대학교와의 통합을 성사시켰지만 그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도 있었다.

대학을 통합하는 데는 단순히 대학 간의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민의 동의와 지역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도해 나갈 각오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부산대학교는 이러한 관점에서 통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실타래를 풀었다. 우리는 대학구성원들과 동문회,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수많은 설명회를 거치며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고민은 국가가 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기존 체제를 그대로 살려 분교 형태의 캠퍼스를 기계적으로 덧붙여서 교명만 하나로 통합할 것이 아니라, 캠퍼스별 특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캠퍼스 특성화 전략이 동반되지 않는 통합은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 아니며, 대학경쟁력의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산대학교는 기존 부산캠퍼스는 인문·사회/기초과학 등 종합연구중심, 양산캠퍼스는 의생명과학, 밀양캠퍼스는 나노·바이오로 특화시키는 특성화 전략이 상당한 효과를 가져 왔다.

이를 통하여 부산대학교는 동남권의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역량대학으로서 부산-양산-밀양을

있는 특화된 캠퍼스벨트를 구축하게 됐다. 이처럼 부산대학교가 특성화를 도모하는 대학 통합을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통합 전 부산대학교의 한 학부로 존립하던 나노과학기술학부 소속 교수들의 주체적인 의지였다. 종전의 나노과학기술학부 소속 교수들을 비롯한 나노 관련 전공 교수 20여 명이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국립대학 최초의 나노과학기술 단과대학 설립 및 획기적인 지원·육성 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밀양캠퍼스로의 이동을 과감하게 선택한 것이 통합을 통한 캠퍼스별 특성화를 견인할 수 있었던 점이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대학본부의 확고한 정책과 전략이 있었고, 통합 논의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활발하게 수렴·반영하는 방식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V. 향후 과제

대학 특성화를 통한 대학구조개혁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산대학교가 ‘중합연구중심대학’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대학 발전 비전 제시와 함께 과감한 특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산·경남·울산 동남권의 국립대학 간에도 협력 체제를 마련하여 대학 간 학과 교환, 지역 거점 연구중심대학 또는 교육중심대학으로의 대학 역할 분담을 통하여 지역 내 국립대학들의 대학 특성화에도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를 냉정하게 진단해 보면, 그동안 많은 변화를 이루었지만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급격한 대외적 환경 변화와 새로운 교육 수요를 수용하며 미래 지향적 발전 전략을 개발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둘러 급조된 특성화는 후유증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학구조개혁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지금까지 국립대는 내부 컨설팅을 거치기 힘들었기 때문에 구조개혁으로 체질을 확실히 개선한 뒤에 강력히 특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산대학교는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다. 즉, 지속적 개혁을 통하여 혁신을 도모함으로써 단발성, 일회성이 아닌 일상적, 상시적 혁신을 추진하여 혁신의 시스템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진정한 혁신을 위해 교육 분야 혁신, 산학연구 혁신, 행정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김유근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구과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캐나다 McMaster University에서 박사후과정을 밟았다. 현재 환경부 환경정책자문위원 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환경과학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부산대학교 교수 및 기획협력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한국대기환경학회 우수논문상, 한국환경과학회 학술상 등을 수상하였고, 주요 저서로는 『환경과 공해』, 『대기환경의 탐색』 등 다수가 있다.